

# 쉬운 우리말을 쓰자

## 2023년 가을호

쉬운 공문서 쓰기  
세종대왕과 쉬운 우리말 쓰기  
한글날, 공휴일을 되찾다  
만화로 보는 쉬운 우리말  
쉬운 우리말 사전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따뜻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백성이 제 뜻을 펼 수 있으려면 당연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겠지요. 문자로 적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제도적인 접근 통로 이전에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한글은 알 권리, 언어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언어 인권을 보장하려는 일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 대중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당대에 의료, 농업 지식을 모아 책으로 만든 업적에 비추어 보면 세종은 이 역시 한글 서적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지식이 막힘없이 널리 깊이 흘러 다닐 때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발전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되겠지요. 한국의 현대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인권과 지식의 열쇠인 것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떡을 해 먹으면서 여유있게 쉴 수 있도록 내려주는

무더위를 이겨낸 이들에게 찾아온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 안에서

이런 가을을 맞아 우리도 일상에서 난무하는 외국어 대신

쉬운우리말에〈떡비〉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할 테니까요.

쉬운 우리말이 &lt;떡비&gt;처럼 내리길 기원하는 의미를 가을호 표지에 담았습니다.



## 생각 더하기

06

### 생각하다

갈등이 풀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등돌림 문화  
- 김정희

08

### 바라보다

캔슬 컬처, 그 용어의 모호함  
- 장민지

10

### 경험하다

일본 한국어 교재에 녹아든 한국 문화  
- 김은수

14

### 공감하다

차별어 못지 않은 구조적 언어 차별  
- 이견범

18

### 전하다

우리말 약칭을 만들고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다  
- 김동범



## 우리말 이해하기

20

### 쉬운 공문서 쓰기

공문서,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이해하기도 쉽다  
- 서현정

24

### 한글의 역사

한글날, 공휴일을 되찾다



## 재미있는 한글 마당

28

### 만화로 보는 우리말

떠날 때는 '키스앤라이드' 말고 환승정차구역!  
- 최솔

34

### 영상으로 보는 쉬운 우리말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36

### 아리아리 새말대모함



## 사례 나누기

38

### 사례 살펴보기

어려운 용어 개선, 언어 환경 개선의 밑거름  
- 최동주

42

### 쉬운 우리말 사전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44

###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 우리말 바꾸기

46

### 2023 새로 다듬은 말

48

### 2023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50

###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51

### 우리말 책소개







알기 쉬운 우리 새말

## 갈등이 풀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등돌림 문화



김정희(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알기 쉬운 우리 새말  
등돌림 문화  
캔슬 X 컬처



새말 모임에서 다듬은 외국어 신조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으로 이미 우리말 이름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영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말이 그 한 가지다. 이번 달 새말 모임에서 다듬은 외국어 중 ‘머니 무브’나 ‘뱅크 런’ 등이 그렇다. 딱히 새로운 현상도 아닌데 멀쩡한 우리말로 불리던 ‘자금 이동’, ‘인출 폭주’가 어느 순간 영어로 둔갑했다. 새말 모임은 원래 쓰이던 이 우리말을 새삼 ‘새말’로 되돌렸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나 현상이라 우리말로 이를 일컬을 말이 정착하기 전에 영어 표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부터 살펴볼 ‘캔슬 컬처(cancel culture)’가 그렇다.

캔슬 컬처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스엔에스)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하고 거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인종, 계급, 성별 등에서 소수자를 주류 세력이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있었던 터. 그런데 인터넷상의 공동체와 사회 관계망이 발달하면서 ‘(트위터 등의) 팔로우’나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는 뜻에서 ‘캔슬 컬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용어가 널리 퍼진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인터넷상의 차단, 배척 현상이 두드러지면서다. 국내 언론에 처음 소개된 것도 같은 시기인 2019년 10월 <서울신문> 기사를 통해서다. 그 외에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캔슬 컬처에 대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만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한겨레21> 2020년 9월)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한국에 대해 ‘캔슬 컬처’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캔슬 컬처는 유명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언팔로하는 등 보이콧하는 현상을 뜻한다.”(<머니투데이> 2023년 2월 1일) 등의 용례가 있다.

이 용어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의 ‘취소’로만 쓰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품의 불매운동,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명인사의 창작물 고발, 연주자의 공연 출연 배제 등 온라인 외의 공간과 맥락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옹호한 음악인들의 무대 공연을 철회하거나 섭외를 중단한 문화계 움직임도 ‘캔슬 컬처’라 불렸다.

‘캔슬 컬처’를 우리말로 옮긴 예를 찾아보았다. 영어 뜻

그대로 옮겨 ‘취소 문화’라고 옮긴 사례(<서울신문> 등)가 간혹 있고 위키백과 역시 ‘취소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직역’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온라인 사회관계망 외에서 두루 쓰이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일보>나 <한겨레>는 ‘손절 문화’, ‘철회 문화’라고 옮기기도 했다. <국민일보> 역시 “캔슬은 ‘취소’보다는 지지 철회나 손절, 배척, 사회적 매장, 응징, 온라인 몰매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단어+단어’의 간단한 형태로 옮기기 애매하다 보니 ‘온라인 왕따 현상’ ‘온라인상 집단 비방 문화’라고 수식하거나, 괄호 안에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덧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작은따옴표로 묶어 ‘캔슬 문화’라고 적은 뒤, 아예 우리말 뜻풀이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적절한 대체 우리말이 정착되지 않고, 뜻풀이도 없이 영어 표현만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빨리 새말을 다듬어 보급하지 않으면 영문 ‘캔슬 컬처’가 그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그래서 새말 모임이 서둘러 우리말 순화작업을 할 필요가 더해진 것이다.

새말 모임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다듬어낸 우리말 표현은 ‘배척 문화’, ‘등돌리기/등돌림(현상/문화)’, ‘지지취소 문화’, ‘거절(거부) 문화’, ‘유형성 등돌리기’, ‘추방 문화’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지칭하지 않고, ‘배척’, ‘퇴출’보다는 부드럽고 너른 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고자 고민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후보는 ‘거부 문화’, ‘등돌림 문화’, ‘삭제 문화’였고, 이 중 여론조사 결과 ‘등돌림 문화’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 최종 새말로 결정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을 때는 한자어보다 아예 순우리말인 ‘등돌림’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ㅇ’과 ‘ㄹ’을 많이 사용해 어감도 부드럽고 입에 감긴다. 게다가, 새말 모임에서도 나온 의견처럼,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서서 상대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캔슬’이라는 영어는 물론이요 ‘취소’나 ‘삭제’보다 더 희망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

※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다듬을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새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 캔슬 컬처, 그 용어의 모호함



장민지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조교수)



캔슬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약속이나 예약을 취소할 때, 우리는 외국어인 ‘캔슬(취소하다)’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캔슬 컬처라는 용어가 수사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는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캔슬 컬처라는 용어에서의 ‘캔슬(cancel), 캔슬링(canceling)’이라는 영단어의 의미는 ‘공인들의 행동이나 의견에 관해 반대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반대 의사를 표면화’하고, 그들의 지지를 가시적으로 철회, 즉 취소하는 온라인 문화 현상을 뜻하고 있다(서경주, 2020). 캔슬 컬처는 인종, 종교 혹은 성소수자들을 차별, 혐오하는 발언을 한 공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를 가시화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역사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 단적으로 아이돌 멤버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증거를 통해 드러나자 그들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보이콧)는 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획사들은 일제히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재빠르게 그들을 광고계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스비에스(SBS)의 과도한 역사 왜곡에 대한 수용자들의 강력한 비판과 이로 인한 〈조선구마사〉드라마의 편성 취소는 바로 캔슬 컬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수용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판결이 대중적인 낙인 효과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중적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행동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캔슬 컬처라는 외국어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심지어 어려움을 ‘더욱’ 겪게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가 캔슬이라는 외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캔슬 컬처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의 ‘캔슬’이라는 방식이 이 용어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캔슬은 ‘하지 않음’을 뜻하지만, 캔슬 컬처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캔슬 컬처’라는 용어보다 ‘등돌림 문화’와 같은 한국어 사용이 훨씬 더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직관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식당들이 소비자들의 평점과 리뷰를 왜 관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소비하는 위치만을 점유하진 않는다. 식당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리뷰와 높은 별점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이용자들은 리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웹상으로 축적되어 다방면으로 노출된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화제가 된 현상들이 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며 계속 공유되고, 확산된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해온 ‘등돌림 문화’의 일부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캔슬 컬처라는 용어보다 ‘등돌림 문화’라는 한국어를 통해 설명되기 용이한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박재범이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올린 글 때문에 빚어진 2PM 탈퇴사건은 단순한 소비자로 위치되었던 팬덤이 이에 반박하며 그가 속해 있었던 2PM의 모든 활동을 불매하고 배척(보이콧)하겠다는 대규모 시위로 확장되면서 주목받았다. 이 또한 팬들이 대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기획사로부터 등을 돌린 사건이다.

‘등돌림 문화’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단순히 수용자가 수용에 대해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규모의 집단 행위를 동반한다는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이전까지의 소극적인 수용거부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 생산-수용 관계에서 하부에 위치하던 수용자의 권력이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면에서 이 용어의 한국적 사용이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다. 🐦



\*마이스페이스: 우리나라의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와 유사한 온라인 가상공간. 현재는 없어졌다.

서경주(2020). 캔슬 컬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언론중재〉.156.  
Jenkins, H., Ford, S., & Green, J.(2013). Spreadable media. New York University Press.  
Tom Cowie(2019.12.2.). The Sydney Morning Herald.  
<https://www.smh.com.au/culture/books/cancel-culture-is-the-macquarie-dictionary-s-word-of-the-year-for-2019-20191202-p53fzy.html>

## 일본 한국어 교재에 녹아든 한국 문화



김은수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0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본의 젊은 세대 일상 전반에 한국 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를 ‘4차 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본의 젊은 세대 일상 전반에 한국 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를 ‘4차 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음식, 옷, 화장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일본 최대 규모의 지역할당형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올해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한국 음식(구루메) 페어’를 진행했다. 양난영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차장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수가 하루 평균 2,0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사 기간 중 누적 2억 8,000만 명에게 한국 음식과 한국 방문의 해를 알릴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사 상품을 전한 트위터 글이 33만 번의 리트윗 수를 기록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음식 페어 관련 포스터/사진=세븐일레븐 제공

4차 한류 열풍은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0·20·30대들은 ‘진짜(チンチャ)’, ‘사랑해요(サランヘヨ)’ 등 한국어를 사용해 소통하기도 한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 일본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아예 ‘심쿵’, ‘멘붕’처럼 한글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쿨’하고 세련된 최신 유행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가 지난 4월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10·20대의 약 46.7%가 “평소 생활에서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한국어 문구나 단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0대는 약 83.7%가 “학교 등에서 친구가 한국어 문구나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일상 속 한국어 유행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 독립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김수정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사인 엔에이치케이(NHK)의 최근 한국어 방송 교재가 “구성 에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가미하며 트렌디하게 앞서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존의 한국어 학습 교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어체와 학습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표현이 도입,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듣기, 말하기를 고려하지 않고 문법 항목 및 문형만을 제시했던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케이팝은 한국어 교재 구성에 새로운 영향을 주어 일본에서는 ‘덕질’ 용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덕질용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기도 했다.

### ‘꽃길만 걷자’, ‘맏관부’... 일본의 ‘덕질용 한국어 교재’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한다.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외국인 팬들이 ‘오빠’, ‘애교’, ‘막내’를 번역 없이 ‘Oppa’, ‘Aegyo’, ‘Maknae’처럼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외국어로 딱히 알맞은 단어가 없어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을 보고 아이돌(Idol)과 훈민정음을 합쳐 만든 신조어 ‘돌민정음’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오빠’는 블랙핑크의 노래 ‘붐바야’에서 후렴구에 등장하며 대표적인 한류 유행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오사카 시내 서점에서 팔고 있는 ‘덕질용 한국어 교재’(왼쪽)와 교재 내용(오른쪽)  
사진=직접 촬영

일본 출판사 ‘각켄(Gakken)’의 〈세계가 넓어지는 덕질 한국어(世界が広がる推し活韓国語)〉(2023)나 ‘와니 북스(Wani Books)’의 〈추구하고 싶은 나의 한국어(推したい私の韓国語)〉(2022)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어 교재이다. 일본 덕질 문화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오시카츠(推し活, 덕질과 유사)’라는 단어를 제목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가 넓어지는 덕질 한국어〉에서는 ‘캠백’, ‘직캠’ 등 아이돌 덕질에 꼭 필요한 용어와 ‘찐 사랑이라 괴롭다’, ‘씹덕사... 좋은 인생이었다...’ 등 실제 아이돌 팬들이 쓰는 말투를 이용한 문장을 소개한다. 한국어 문장 위에는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일본어 문자인 ‘가나’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아래에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해설한다. 출판사의 내용 소개에 따르면, 한국어 화자와 함께 만들어 자동 번역이나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생생한 어휘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 키노쿠니야 서점 내 한국어 교재 코너를 찾은 엔도 씨(20대·여성)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 저절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를 배워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싶다”며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  
‘장래의 실용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호기심, 여행’ 등을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았고 그 경향은 최근 들어  
더 강해졌다고 한다.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하게 됐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성은 한국 문화에 달렸다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박종후 교수에 따르면, 일본 대학에서 비전공 한국어 과목의 수강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장래의 실용성’ 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호기심, 여행’ 등을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았고 그 경향은 최근 들어 더 강해졌다고 한다. 취업 활동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 문화적인 관심이 있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덕질 용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덕질용 한국어 교재’를 구매하는 사람들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여태까지 일본 서점 내 한국어 교재들이 회화보다는 문법 위주였으며, 예시 문장으로 문어체를 쓰는 등 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사회·문화적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관심과 호기심을 더욱 높이고, 동시에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덕질’과 같은 케이팝 분야에서의 어휘뿐만 아니라 여행, 음식, 화장품 등의 분야를 주제로 한 교재를 제작하여 한국어 교재 선택의 폭을 넓히면 더욱 많은 사람이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만큼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차별어 못지 않은 구조적 언어 차별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얼마 전 장애인 권리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지발언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 꼬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라고 해야 할 걸 “장애인과 비정상인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할 걸 ‘비정상인’이라고 했으니, 시각장애인인 나조차 아직도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낱말 짝이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가 보다.

그럼에도 이제 제법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낱말 짝이 자리를 잡아간다. 장애인 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일컫자는 의견이다. 그전에는 ‘장애인-정상인’이라는 낱말 짝이 자주 쓰였는데, 그런 구도라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세상을 장애가 없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가나 보다.

언어적 차별은 차별어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다. ‘장애인-정상인’과 같은 낱말 짝이나 서울 중심의 ‘상행선-하행선’ 같은 낱말 짝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남자 교수에게는 ‘남교수’라고 안 하지만 ‘교수-여교수’처럼 사회적 약자인 특정 집단을 특이 현상인 양 부름으로써 보편적이지 않고 주류가 아니라는 인상을 풍기게 하는 형식도 있다. 물론 ‘맘충, 한남충, 김치녀’처럼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혐오표현이 가장 노골적인 차별어이며, 차별의 전통을 담고 있는 ‘암탉이 울면, 어디서 여자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등의 말도 혐오가 뻔 차별어의 한 가지 형식이다.

노골적인 차별어 어휘에 대해서는 선악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벌어진 차별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차별어를 차별어로 인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유모차’와 같은 용어가 아이 키우는 일은 여성의 고정적인 성 역할이라는 말빛을 풍기므로 이를 ‘유아차,

아기차’로 바꾸자고 할 때 어느 특정 역사 시기에 여성이 육아를 주로 담당했던 사실을 변치 않는 자연 섭리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이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어에 대해 고민할 때는 생각을 매우 개방적으로, 탄력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세상 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 자주 논란이 일어난다. 이게 차별어냐 아니냐 갑론을박을 해대는데,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이름에 붙이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비유적 표현으로 장애인 여성을 거론할 경우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첫째, 언제든 ‘여,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차별적이라는 질문이 있다. “여교수들은 이래서 문제다, 여직원들은 이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집단화하여 여성 구성원을 차별하는 언사는 당연히 차별 행위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부러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어 조직 이름을 붙이는 경우에,

그것이 스스로 차별의 올가미를 거는 일이라고 볼 까닭은 없다. ‘여성노동자회, 여의사회, 남자간호사회’ 등의 사회적 약자 모임에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스스로 차별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화, 힘 모으기 장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둘째, 비유적 표현으로 ‘치마바람, 처녀작’ 또는 ‘외눈박이’처럼 여성과 장애를 들먹이는 경우에 이게 언어적 차별이라는 논란이다. 내가 보기엔, 말한 이에게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접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는 그것이 차별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따지고 보면, 외눈박이,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 등의 말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말이 아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부르기 위해 지은 이름인데, 그 존재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도 차별의 용례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말 안에 차별의 말빛이 깊이 आरोसाे겨져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이 차별의 느낌을 받게 된다. 대체로 인용과 경구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말은 요즘의



말로 바꾸어야 한다. 굳이 차별 시비를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할 까닭이 없다. “세상을 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세상의 다양한 면을 모두 보라, 편견을 가지고 한쪽만 보지는 말라.” 뭐,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다.

차별어가 나쁘다는 사실은 굳이 근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차별의 부당함을 알아채는 순간 싹트게 된다. 남녀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인종과 민족 차별, 외모 차별 등은 비교적 차별의 부당성이 명백하므로 차별어의 사용에는 나쁜 짓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얼마 전까지는 지위와 재산에 따른 차별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고, 학벌과 학력의 차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매우 걱정스럽게도, 이런 시각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능력과 노력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최악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다 보니 성공한 이와 실패한 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명문대 출신과 비명문대 출신을 차별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냐는 일종의 뻔뻔함이 바짝 고개를 든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은 특권이나 편법을 배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신념이 도가 지나치면 성공과 성과에 배어 있는 다양한 행운과 보이지 않는 타인의 수고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하게 하여 ‘능력자’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무능력자’들을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찍는다. 여기서 언어, 특히 외국어가 구조적 차별의 장치로 작동한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때 영어 능력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영어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확인해준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선발의 기준이자 사회적 자격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여 배운 티를 내는 것,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능력자들이 걸로 학벌과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되었다. 낮은 학력, 안 좋은 학벌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마구 쓰는 걸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공동체 성원을 배려하면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언어 문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넘기 어려운 구조적 차별인 셈이다.

차별어 어휘 사용이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분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영어 남용과 여기에서 비롯한 언어적 차별은 선과 악으로 가르기가 쉽지 않다. 어느 지점까지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동 선’의 관점에서 영어 남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공공영역과 개인 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우리네 공용어가 한국어인 이상 적어도 공공영역에서는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말로 표현하자는 합의가 가능하다. 그것이 외국어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을 줄이고 정보 접근의 불평등 구조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니까. 개인 영역에서도 그저 개인의 취향에 맡길 일만은 아니리라. 개인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말 위주로 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식 대중화의 발판이 된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위주로 대화하려는 노력 또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으로 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복돋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가, 언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가는 개인의 자유이긴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언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반영되고, 현실에서는 언어가 능동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

\* 이 글은 한국어문기자협회 <말과 글> 제174호에도 실렸습니다.





# 우리말 약칭을 만들고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다

김동범 (한글문화연대 연구원)



## BIE, 100명 중 4명만 알고 있는 로마자 약칭

올 3월 10일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이 뜻을 모아 ‘우리말 약칭 제안 모임’(이하 ‘약칭모임’)을 만들었고, 국립국어원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약칭모임은 정부와 언론에서 빈번하게 쓰고 있는 국제 조직의 로마자 약칭이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외교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이다. 동시에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로마자 약칭이 ‘BIE’이다. BIE는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의 줄임말인데 풀어서 쓴 이름도, 줄인 이름도 생소하다. 번역하면 ‘국제 박람회 기구’이다. 약칭모임에서 조사한 바로, ‘BIE’가 어떤 조직인지 아는 사람은 100명 중 4명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가 BIE를 남발하고 있으니,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높아만 간다.

언론인과 공무원이 로마자 약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박람회기구(온 이름)’ 대신 ‘BIE(로마자 약칭)’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언어의 경제성 때문일 것이다. ‘글은 짧게 쓰면 쓸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기관에서나 기사를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을 권장한다.

언론인과 공무원 입장에서 ‘국제박람회기구’라는 7음절 단어보다 ‘BIE’ 3음절의 단어를 제목과 본문에 넣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첫 문단에 사용한 ‘우리말약칭제안모임’을 ‘약칭모임’으로 줄여 쓰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적이면서도 소통성을 보장하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약칭모임은 정체 파악이 어려운 로마자 약칭 대신 쓸 우리말 약칭을 만들어서 언론과 정부 부처에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국제박람회기구’의 우리말 약칭으로 ‘박람회기구’를 정하고 알려 언론인과 공무원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짧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 국민은 로마자 약칭보다 우리말 약칭을 원하고 있다.

약칭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심의회를 열어 우리말 약칭을 만들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세 번의 회의에서 ‘○○기구’로 번역되는 국제 조직 15개와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모두 16개 조직의 우리말 약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우리말 약칭을 곧바로 내놓지 않고 국민 수용도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해서다.

약칭모임에서 만든 우리말 약칭 16개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하여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였고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리말 약칭 수용도뿐만 아니라 로마자 약칭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만약 로마자 약칭의 인지도가 낮고

그것을 대체 할 우리말 약칭의 국민 수용도가 높다면 정부와 언론에서 우리말 약칭 사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 조직의 우리말 약칭 수용도〉 \*인지도 순

온 이름	로마자 약칭	인지도	우리말 약칭	수용도
세계보건기구	WHO	71.5%	보건기구	77.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69.0%	경협기구	62.2%
세계무역기구	WTO	57.7%	무역기구	79.9%
국제원자력기구	IAEA	43.7%	원자력기구	78.4%
국제표준화기구	ISO	26.7%	표준화기구	79.2%
국제노동기구	ILO	21.9%	노동기구	73.7%
국제에너지기구	IEA	20.5%	에너지기구	79.4%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9.1%	연공위	58.5%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11.1%	관광기구	65.9%
국제해사기구	IMO	9.3%	해사기구	67.0%
세계관세기구	WCO	7.3%	관세기구	75.2%
세계기상기구	WMO	7.2%	기상기구	74.4%
국제수로기구	IHO	7.2%	수로기구	69.0%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6.8%	민항기구	66.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4.4%	지재권기구	58.2%
국제박람회기구	BIE	3.5%	박람회기구	74.1%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다수의 국민(71.2%)은 로마자 약칭 대신 우리말 약칭 사용을 원한다.  
둘째. WHO, OECD, WTO, IAEA를 제외한 나머지 로마자 약칭을 알고 있는 국민은 평균 12%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이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WHO, WTO, OECD

같은 로마자 약칭 또한 우리말 약칭으로 바꿔주길 원하고 있다.(평균 70% 이상)

## 우리말 약칭에 대한 자신감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많은 국민이 로마자 약칭을 어려워하고 우리말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WHO’와 ‘OECD’까지도 우리말 약칭으로 바꿔주길 원한다는 사실은 의외이자 기쁜 소식이었다. 이미 굳어진 로마자 약칭까지도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말 약칭을 만드는 작업은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 말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약칭모임 위원들은 매달 격렬하게 토의를 하면서도 항상 ‘이 말이 과연 사람들에게 통할까?’라는 걱정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약칭모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에게서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유엔(UN) 관련 조직,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제 조직, 새로 설립되는 국제 조직의 우리말 약칭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물론 우리말 약칭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현장에서 이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 공무원과 전문가, 언론인 모두 스스로없이 사용해보길 권한다. 🌈





# 공문서,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이해하기도 쉽다

서현정 (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공공언어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소통성과 정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성’은 외국 글자, 외국어, 한자어 등의 어려운 말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성’은 뜻이 바르게 통하도록 표기와 표현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 모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표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온 말이나 어법 등이 공문서에도 사용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문서에서 틀린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에 잘못된 용어와 표현이 사용되면, 그러한 표현들이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공언어의 ‘정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문서의 정확성을 살펴보려면 먼저 용어 등을 바르게 표기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문서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게 사용한 용어들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동·식물’, ‘시·군’, ‘전·후’와 같이 어구를 묶거나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로 묶을 때 가운뎃점을 사용하는데, 일부 단어들은 사전에서 한 단어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외’, ‘동식물’, ‘시군’, ‘전후’와 같이 써야 합니다. 가운뎃점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을 한번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답사길로 쓰는지 답샷길로 써야 하는지 등 사이시옷의 바른 표기를 확인할 때에도 이와 같이 사전을 검색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잘 틀리는 표현(1)

-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뎃점 ○)
  - ▶ 경북·경남, 동사·형용사,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낼 때 (가운뎃점 ○)
  - ▶ 3·1 운동, 8·15 광복
- ☞ 가운뎃점이 없어도 이미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 (가운뎃점 X)
  - ▶ 국내외, 동식물, 시군, 전후

**둘째, 두음법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음법칙이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입니다. ‘ㄷ, ㅌ, ㅊ, ㅍ’ 앞에서 ‘ㄹ’과 ‘ㄴ’이 없어지고, ‘ㄷ, ㅌ, ㅊ, ㅍ’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로(年老)하다’에 사용된 ‘연/년(年)’을 단어의 첫머리에서 ‘연’으로 쓰고, ‘노/로(老)’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노인’과 같이 발음되는 예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문서에 ‘1차 년도’와 같이 사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두음법칙에 따라 ‘년도’를 ‘연도’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해를 나타내는 수 표현 뒤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3년도’와 같이 씁니다.

한편, ‘-율(率)’과 ‘-률(率)’은 ‘비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도 어떤 말 뒤에 쓰이냐에 따라 표기가 결정됩니다. ‘ㄴ’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 뒤에는 ‘-률’을 사용하는데, ‘출산율’, ‘비율’, ‘발생률’과 같은 주요 예시를 알아두시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 틀리는 표현(2)

- ▶ 1차 년도 (X) ➡ 1차 연도 (○)
- ▶ 남녀노소 (X) ➡ 남녀노소 (○)
- \* 단, 수 표현 같은 의존 명사 뒤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 2023년도 (X) ➡ 2023년도 (○)
- ▶ 금한양 (X) ➡ 금한량 (○)

- ※ ‘-율’과 ‘-률’
- ☞ ‘-율’: ‘ㄴ’받침의 말 뒤 또는 받침 없는 말 뒤
    - ▶ 출산율, 비율
  - ☞ ‘-률’: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말 뒤
    - ▶ 발생율 (X) ➡ 발생률 (○)

**셋째, 외래어를 적을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라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에서 정확한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 사용되었던 잘못된 외래어 표기 사례와 바른 표기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어 표기는 한국어에 사용되는 외국어를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며, 표기대로 발음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서 발음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잘 틀리는 표현(3)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서포터즈	서포터스
비전	비전
컨소시움	컨소시엄
컨셉	콘셉트
컨퍼런스	콘퍼런스
호치민	호찌민

넷째, 괄호 뒤에 조사를 쓸 때에는 앞말의 받침에 유의해서 써야 합니다.

괄호 안의 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사용한 사례들이 공문서에 많이 발견되는데 괄호 앞말의 받침에 따라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 잘 틀리는 표현(4)

협력체(컨소시엄)을 (X)	협력체(컨소시엄)를 (O)
○○구청 홈페이지(접수·예약)을 통해 (X)	○○구청 홈페이지(접수·예약)를 통해 (O)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X)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로 (O)
홍보담당관(☎ 000-0000)로 (X)	홍보담당관(☎ 000-0000)으로 (또는 예게) (O)

또한, 공문서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한 대표적 예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접수'와 '신청(제출)'을 혼동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팀으로 방문 접수(대리 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등이 대표적인데, 접수의 사전적 의미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나 문서로 받음'인데, '신청' 또는 '제출'을 써야 할 자리에 '접수'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접수'하고 민원인은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sup>1)</sup>.

'상반기에 지원하는 물량은 250개이며, 전체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에 사용된 '다자녀'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구는 구의 여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손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 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라는 문장에서 '손쉽게 제공하는'이라는 표현은 ○○구가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는 구의 여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눈에 ○○' 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여기에 제시한 문장 예시들은 실제 공문서에 사용된 것들로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잘 틀리는 표현(5)

- ▶ ○○구는 구의 여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손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 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구가 서비스 제공을 '손쉽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구는 구의 여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눈에 ○○' 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

정확한 뜻을 확인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 행사 유치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격적인 기획의 장이 되었다.'에 사용된 '전격적인'은 사전적인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본격적인'을 쓰려다 혼동한 것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 행사 유치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기획의 장이 되었다.'로 수정하면 의미가 잘 통합니다. 🐦

#### 잘 통하는 표현

- ▶ 이번 회의는 국제 행사 유치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격적인 기획의 장이 되었다.  
\* 전격적: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것.
- ▶ 이번 회의는 국제 행사 유치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기획의 장이 되었다.  
\* 본격적: 제 궤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것.







# “한글날, 공휴일을 되찾다”

한글날은 지식인의 전유물이었던 문자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다.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건 일제강점기인 1926년이다.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로 정해 기념했는데, 당시에는 ‘가갸날’이라고 불렸다. 오늘날의 이름인 ‘한글날’로 개칭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28년이다. 1945년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많은 매체에서 소개하듯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이는 한글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만든 문자이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글날의 탄생과 역사

한글날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한글이 반포된 지 480년이 되던 해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31년(혹은 1932년)부터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하지만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시 환산한 결과 10월 28일로 계산되었고, 1934년부터 10월 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열었다.

양력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이다.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1949년 6월 4일 제정한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건」에서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그 지위는 기념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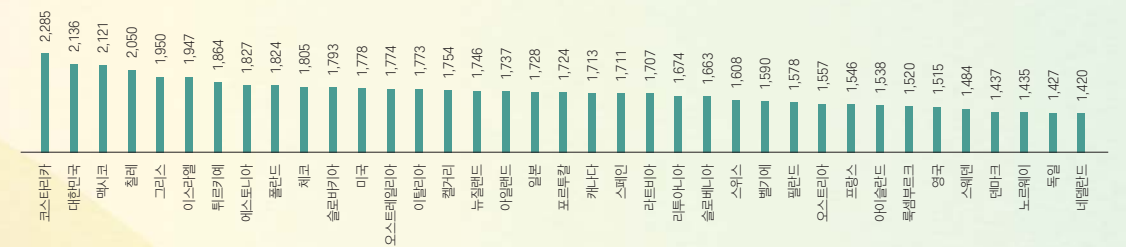
한글날 기념행사는 광복 이전부터 한글학회 등 한글 단체에서 주관해오다가 1982년이 되어서야 정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휴일이 너무 많아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의 주장에 따라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해 8월 국무회의에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한글날은 1991년부터 단순한 기념일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문자를 기념하는 날이 단순 기념일로 바뀌었지만, 한글 관련 단체의 국경일 제정 운동 덕분에 2006년부터 국경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2009년부터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경제부처와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및 경제 단체가 우려를 표하며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다. 특히나 국경일로 지정되기 전인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더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여러 국어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모여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이하 ‘한글날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앞장서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반대했는데 휴일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한글날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경협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근로자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2위(1위는 코스타리카)인 점, 휴일 수와 경제 간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의 연중 노동시간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136시간이었는데, 경협기구 회원국의 평균 연중 노동시간이 1,723시간이었다. 평균치에 비해 413시간이나 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림잡아 400시간을 하루 8시간에 주 5일로 셈하면 1년 동안 12달이 아닌 14달이 넘도록 일을 하는 셈이었다.

한글문화연대 이진범 대표는 2012년 10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도끼 상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원래 도끼 상소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려던 시점에 최만리 일파가 한글 반포를 반대하며 벌인 것이었다. 수백 년이 지나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며 도끼 상소를 벌이자 수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고, 국민의 여론을 일으키는 기반이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근로자당 연평균 근로시간 (2011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그로부터 이틀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안전부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2년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89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로부터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난 12월 24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부터 달력속 10월 9일은 다시 빨간 날로 변했다.

2006년부터 한글날이 기념일에서 국경일이 된 뒤에도 국민 가운데 한글날이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늘어났었다. 2009년 11.9%가 한글날을 몰랐는데 2011년 37%가 한글날이 며칠인지 몰랐다. 특히 한글날을 공휴일로 경험하지 못한 20대와 청소년에서 모르는 비율이 60%가 넘었었다. 어느 때와 다른없는 달력속 ‘검은 날’은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기 쉽지 않다. 어떤 이유보다도 한글이 민주적 의사소통의 토대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한글의 소중함을 단순히 유산의 차원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만듦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내 언어 환경의 개선을 점검하는 장치를 얻었다. 그 예로 지난해 한글날 경축사 중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상뿐만 아니라 공적인 언어에서의 한글과 쉬운 우리말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한글날’이 돌아왔다. 🌈



2012년 10월 30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펼친 도끼 상소



2012년 11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빨간색 '9' 붙임딱지 나눔 행사



## 인터뷰

## “한글날과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글문화연대가 발행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가을호에서는 최근 젊음의 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홍대를 찾아 시민들과 외국인들로부터 한글날과 한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 차주혜 (22세 /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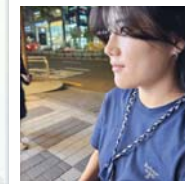
“한글날은 10월 9일이잖아요. 그날은 당연히 공휴일인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왜 쉬는 날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자는 뜻이겠조. 특히 한글은 만들어진 역사와 기록이 정확한 세계 유일의 문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한글날인 10월 9일이 아닐까요?”

“한글은 우리나라 문자이고, 과학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은 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9일이죠.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에는 10월 9일이 단지 빨간 날에 불과할 뿐, 의식을 가지고 무슨 날인지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박태준 (18세 /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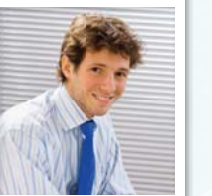
### 이현경 (24세 /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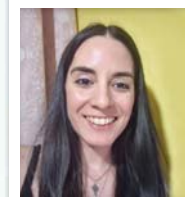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드시고, 창시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실 한글에 관한 기념일은 맞지만, 명확하게 무엇을 기리는 날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한글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유산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휴일인 한글날을 통해서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한글의 중요함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10월 9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한글을 혼자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쉬운 단어부터 써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죠. 불완전한 글자인 것 같으면서도,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 쉽게 이해되는 문자라 비교적 빨리 한글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글을 발음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10월 9일이 한국이 지정한 공휴일 한글날이라면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유의 문자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준 사람이니까요.”

### Alex (43세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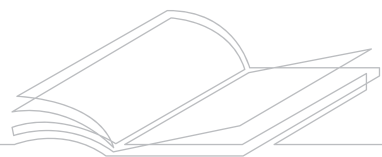


### 아나벨 (30세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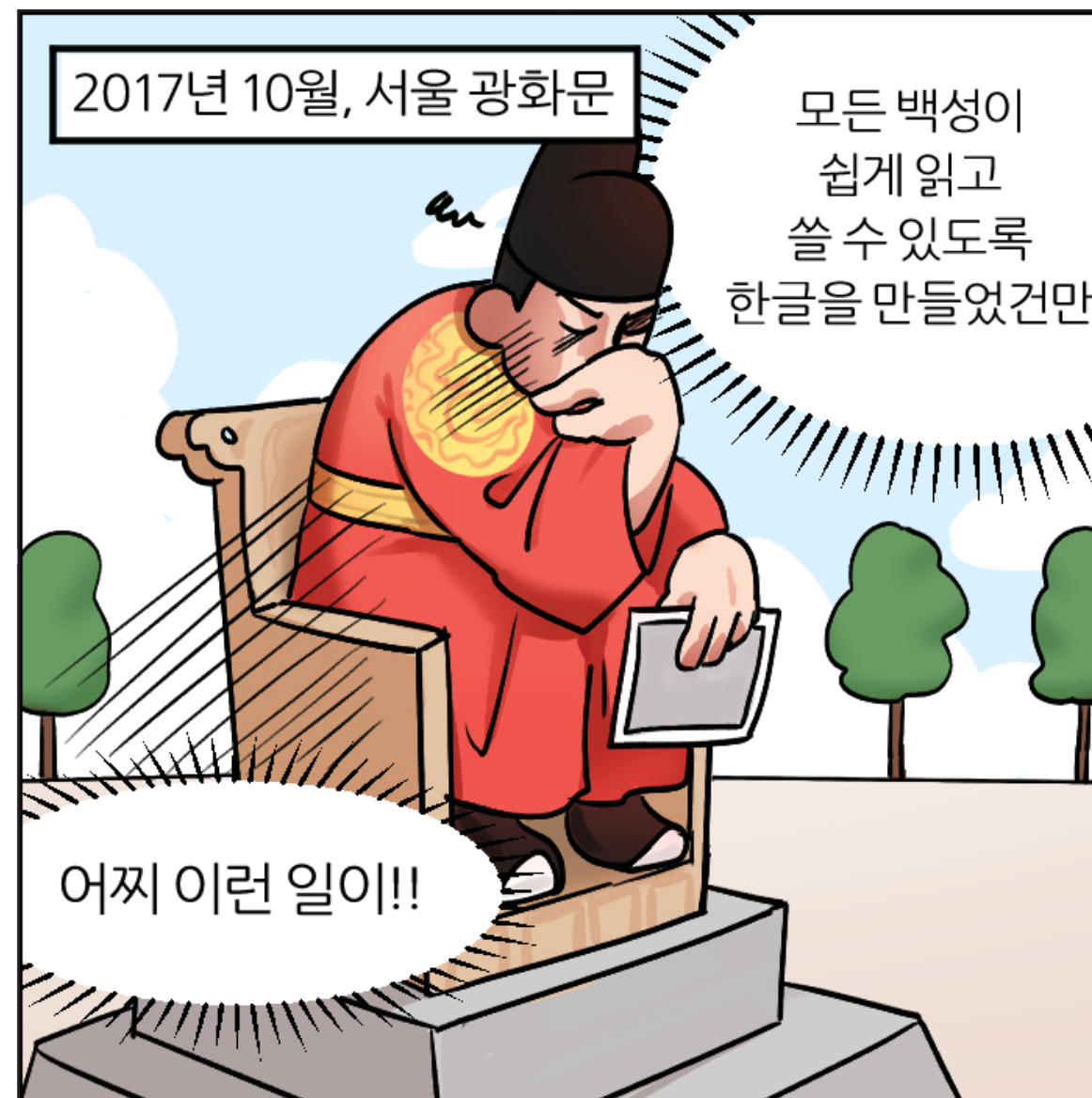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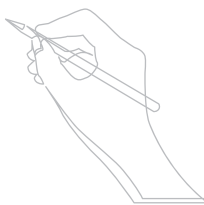
“스페인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제게 한글은 색다른 문자였어요. 저는 5개 나라의 문자를 공부했고, 구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글은 가장 배우기 힘든 문자였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두 번의 토픽 시험을 봤는데,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결과, 지금은 꽤 만족할 만한 구사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기초를 알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한글이 더 쉬워지고 재미있어진다는 사실요. 다른 문자에 비해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친구들과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채팅을 할 정도로 익숙해졌답니다!”





최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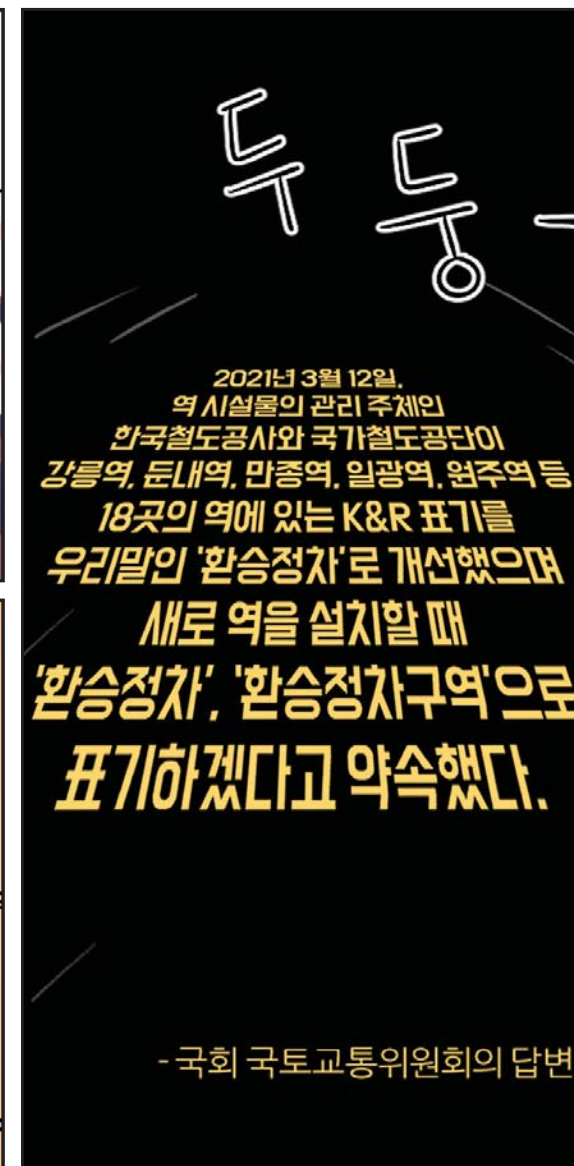
떠날 때는 '키스앤라이드'  
말고 **환승정차구역!**















#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쉬운 우리말 누리소통망

@plain\_korean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urimal2020 페이스북

blog.naver.com/urimal2020 블로그



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알리고 있는  
귀염둥이 '쉬우리'입니다



결과, 경영, 십자화과, 업체류, 근채류

농업 용어라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가요?  
어려운 말 대신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뀌 바뀐 우리말로**  
퀴즈 게임

퀴즈. 호배주나 배주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동글게 속이 드는 일을 뜻하는 우리말은?

▶ 알박이 ▶ 속들이 ▶ 속차기



TF, 컨설팅, 벤치마킹, 테스트베드

자연스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뜻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더라?”  
자주 쓰는 외국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매뉴얼, 리플릿, 팸플릿

자주 쓰는 외국어 삼총사!  
정말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말로 풀어쓰면 헛갈릴 일 없이 완전  
쉬워진다는데! 구경해볼까요?

34  
—  
35

분의 처리, 곤포, 로터리, 마끼, 밀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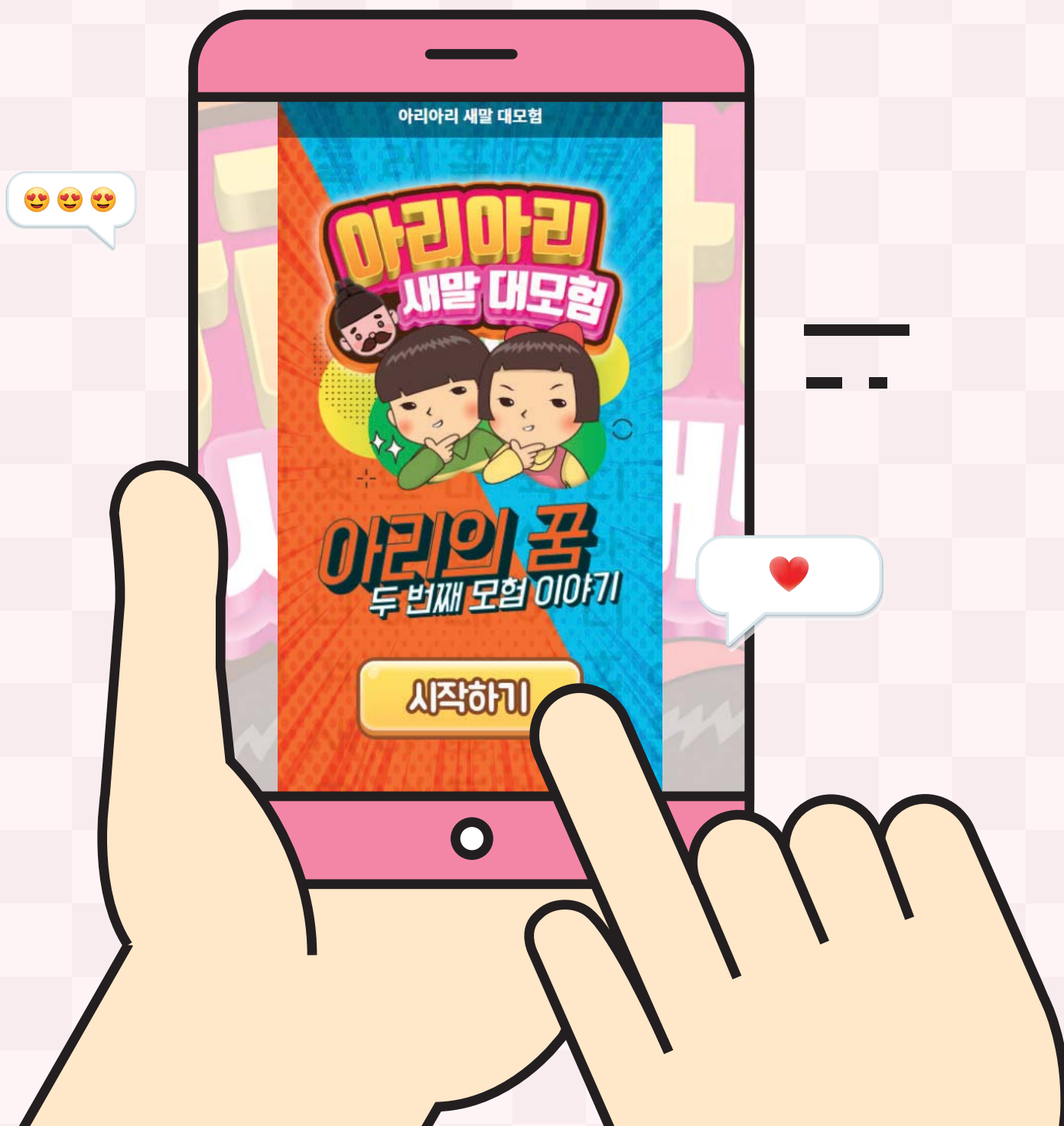
아침 6시에 일어나  
할머니 밥 **차려드려**  
할아버지랑 **분의 처리**하고,  
점심 먹고 눈에 가서 **곤포**하고,  
비 오면 **로터리** 작업하고,  
장에 가서 비닐 한 **마끼** 사 와.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개가 너무 짝어대요  
꿀벌은 하루 중 일  
**밀원수** 찾아 왕왕~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어? 이 가사가 아니라고요?  
눈에 가서 곤포해,  
비 오면 로터리 작업...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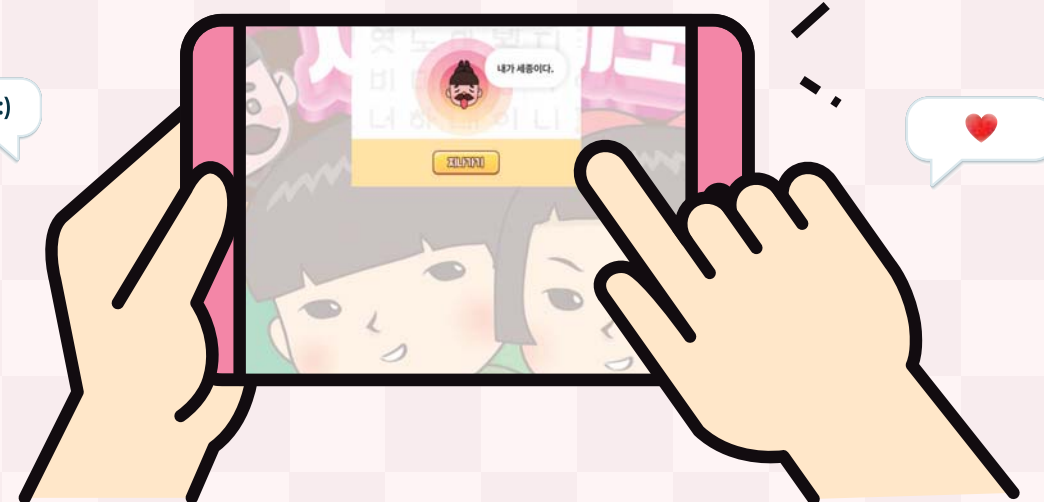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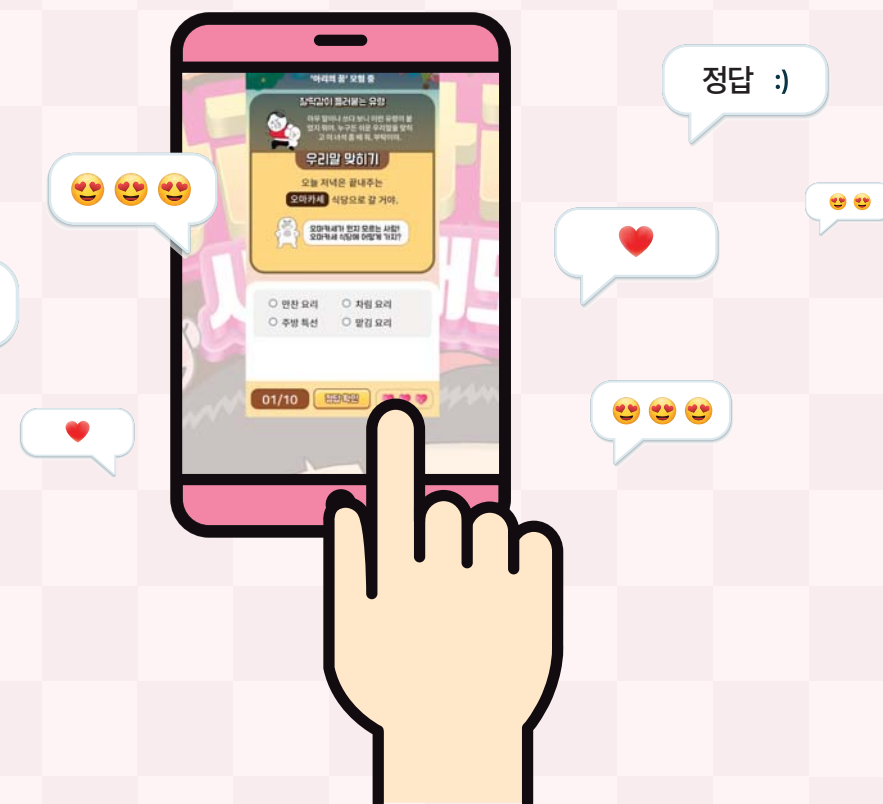
첫 번째 모험을 무사히 마친 아리의 꿈에서 세종대왕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한글날을 며칠 안 남기고도 여전히 나라말이 혼란스럽다고 찾아오셨다는데?!  
처음이 어렵지! 자신만만하게 출발하는 아리는 성공적으로 모험을 마칠 수 있을까?  
아리의 두 번째 새말 대모험! 함께 떠나보세요!



좋아 :)



ㅎㅎㅎ :)



정답 :)



아리아리 :)



## 어려운 용어 개선, 언어 환경 개선의 밑거름

최동주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장)



통합창  
데이터 지연  
해킹 사회운동  
인간형 로봇  
오작동 시험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또는 그 결과이므로, 언어의 변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어휘의 측면에 국한하여 생각해 보자. 이전에 적절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이전에 있었다더라도, 새로운 표현이 좀 더 적절하거나 고급스럽게 여겨진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낱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어떤 낱말은 그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주변에서 사라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낱말이 대신하면서 화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적절한 표현의 유무’, ‘표현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등은 곧 언어 사용의 환경이므로, 언어 사용의 변화는 언어 사용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언어 사용 환경은 어떠한가? 최근 ‘우리말약칭제안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국제기구를 제외한 기구들의 로마자 약칭(ILO, FOMC, WMO, ICAO, BIE...)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가 평균 12%에 불과했으며, 로마자 약칭 대신 우리말 약칭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71.2%에 달했다. 이는 낯설거나 어려운 용어가 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정부나 지자체의 누리집 어느 곳이든 잠깐만 살펴봐도 외국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일상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힐스테이트(HILLSTATE)’, ‘○○캐슬(CASTLE)’, ‘더샵(THE SHARP)’, ‘위브(We’ve)’, ‘○○스타힐스(STARHILLS)’, ‘○○포레나(FORENA)’, ‘아이파크(IPARK)’, ‘SK뷰(SK VIEW)’, ‘자이(Xi)’,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굿모닝힐(Goodmorning Hill)’...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의 고급 상표명들이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 혹시 외국어나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품격이 있어 보이고, 고상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일부의 화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의 언어 사용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말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은 지난 시절에 비해 언어 소통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2022년 ‘정부 공공기관 대상 어려운 전문용어 개선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하여 정보 통신 기술 영역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였다. 아직 대체어가 제안되지 않은 용어들이 대부분이나,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이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의 [쉬운 우리말 사전]에 대체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옵트아웃(opt-out)

옵트인(opt-in)

해커톤(hackathon)

거부 확인 방식

수락 확인 방식

정보기술 대회

‘옵트아웃/옵트인’은 대체어가 제시되지 않은 용어로서, 영어의 뜻을 알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해커톤’은 [다듬은 말]에서 ‘끝장 마라톤 찾기, 끝장 마라톤 토론, 끝장 마라톤 대회’로 제시되었으며, [쉬운 우리말 사전]에서는 ‘끝장 토론’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대체어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안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뜻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체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대체어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위의 ‘해커톤’(『다듬은 말』의 풀이: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결과물, 결과물 시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당연한 지적으로, 대체어를 마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용어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항상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팔굽혀펴기’는 ‘엎드려뻗친 자세에서 짚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뜻하나, 그 용어에는 ‘자세’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커톤’이라는 말도 ‘hack(ing)+marathon’을 줄인 것이나, 어느 쪽도 그것이 뜻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고 있지 않다. 대체어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잘 드러내도록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려운 전문용어’ 다듬기와 관련하여, 몇 개의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용어를 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 변화는 언어 사용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 사용을 반갑고 정겹게 여기고, 품격있게 여기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언어 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는 길일 수 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 대체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례 나누기’와 같은 자리를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하여 마련한 대체어들을, 널리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에 제시한다. 🌈

	기존 용어	다듬은 말
1	IT 멘토링	정보기술 길잡이
2	NSA 방식	공존형 통신 방식
3	SA방식	단독형 통신 방식
4	Wi-Fi 얼라이언스	무선랜 인증조합
5	게스트 아이디	방문자용 아이디
6	대시보드	통합창
7	데이터 딜레이	데이터 지연
8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발굴
9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설계구조
10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11	라스트 마일 기술	최종구간 통신기술
12	라이프 로깅	디지털 일상기록
13	로그 데이터	작업 기록
14	로드 밸런싱	작업량 분산
15	로지스틱스	물적 유통 체계
16	리드 온리	읽기 전용
17	보이스 어시스턴트	음성 도우미
18	사이버 렉카	사이버 바람잡이
19	서드파티	제3기업
20	솔루션	해결 기술
21	스마트 라이팅	지능형 조명
22	스마트 워크센터	지능형 근무공간
23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지능형 기반시설
24	아키텍처	설계 구조
25	오토스케일링	자동 규모 조정
26	오픈 데이터	개방형 자료
27	옵트아웃	거부확인방식
28	옵트인	수락 확인 방식
29	유즈 케이스	사용 사례
30	인벤토리	저장소
31	인스턴트 메신저	즉석 전송
32	제로샷 러닝	백지학습 (인공지능)
33	챗봇	대화 로봇
34	커넥티드카	통신형 자동차
35	커버리지 맵	수신영역 지도
36	컴포넌트	구성 부분
37	크롤/크롤링	긋어모으기
38	킬러 서비스	핵심 서비스
39	테넌트	공유 사용자
40	텔레워크	원격업무
41	툴킷	도구 모음
42	파밍	인터넷 함정사기
43	퍼블릭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44	퓨샷 러닝	소량 데이터 학습 (인공지능)
45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적 클라우드
4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혼종 클라우드
47	해커톤	정보기술 대회
48	해티브즘	해킹 사회운동
49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50	히트런 테스트	오작동 시험





##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바꿔 써야 할 외국어 단어와 대신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제공 공개 에이피아이를 사용하거나 누리집 내 창으로 설치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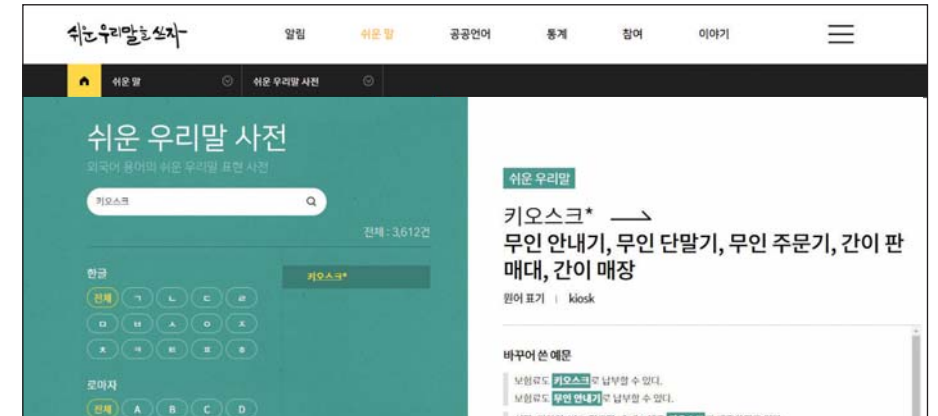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는 '쉬운 우리말 검색' 공개 에이피아이를 제공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과 '외국어 검사기',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을 기관 누리집에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도구를 기관 누리집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한글문화연대(urimal@urimal.org)로 문의하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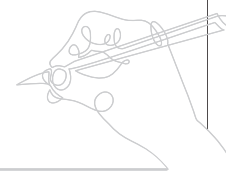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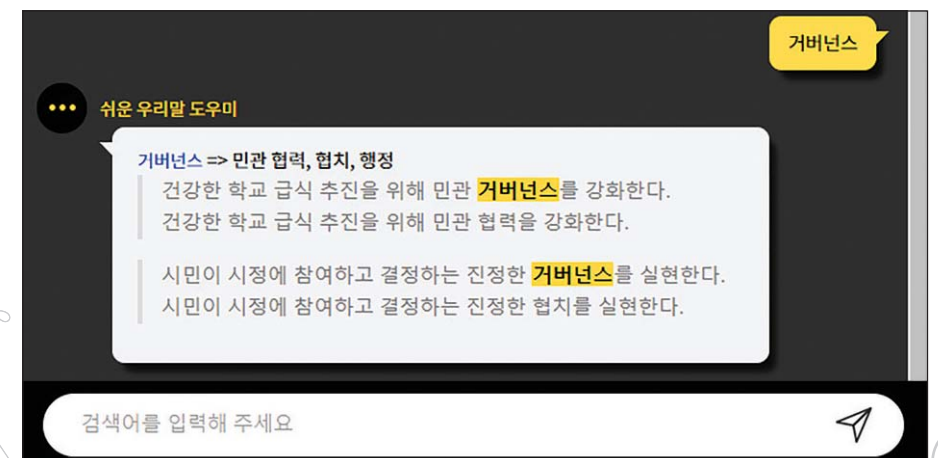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 사전으로 바꿔 써야 할 외국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찾을 수 있다.



외국어 검사기로 문장에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로 우리말 대체어와 예문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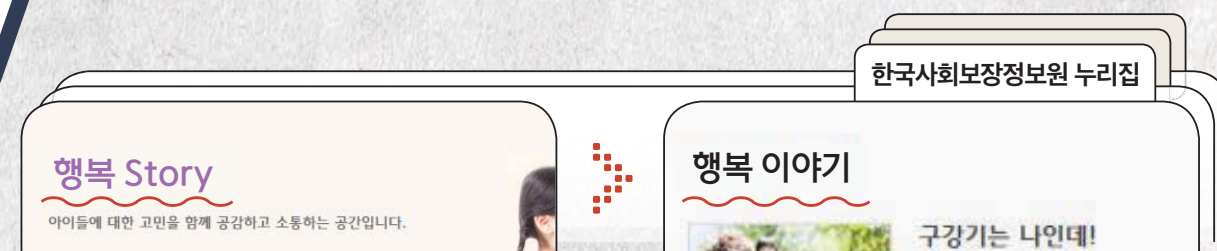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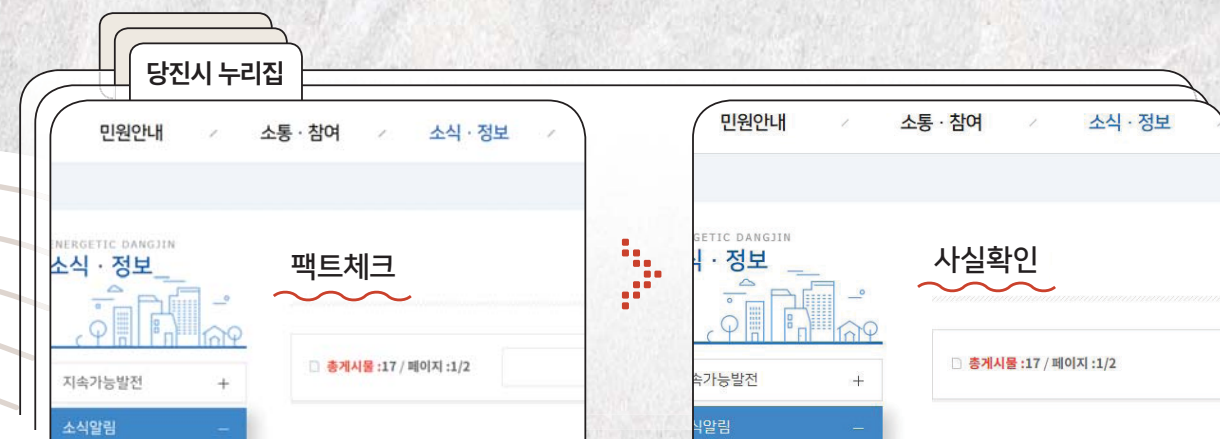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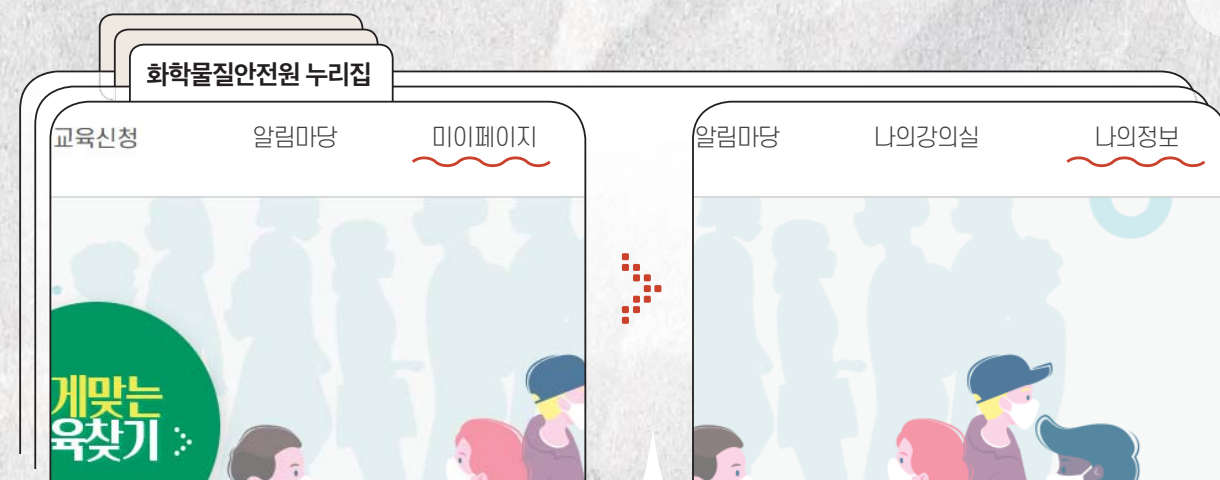
## 다양한 외국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많은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운영한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누리집의 틀을 본 따거나 참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어가 섞여 오기도 한다. 개인정보 등을 확인할 때 들어가는 '마이페이지'가 대표적인 예다.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 이름을 그대로 쓸 때도 있으며,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공공언어 분야에 자연스럽게 침투한 경우다.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보를 받아 우리말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재빠르게 외국어를 없애고 쉬운 말로 바꿔 준 4개의 기관을 소개한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900건가량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 써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306건의 답변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신조어를 대체할 우리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새말 모임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신조어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새로 다듬은 말을 발표한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도 거친다.

‘캔슬 컬처’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등돌림 문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또한, 이미 굳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오마카세’같은 단어로 ‘주방 특선’ 등으로 다듬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힘쓰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의 ‘공공언어 개선>다듬은 말’이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우리 새말을 확인할 수 있다. 🌈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국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문학, 정보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1	뱅크 런(bank run)	인출 폭주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2	그린 오션(green ocean)	친환경 시장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3	로크인 효과, 록인 효과(lock in effect)	자물쇠 효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
4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
5	머니 무브(money move)	자금 이동	낮은 금리 등의 이유로 자산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6	캔슬 컬처(cancel culture)	등돌림 문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follow)를 취소하고 거부하는 현상.
7	본드 런(bond run)	채권 매도 사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을 파는 현상.
8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주류 반입 무료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개인이 가지고 온 주류를 개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잔 따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
9	올드(YOLD ← young old)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10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11	뱅크데미크(bankdemic ← bank pandemic)	은행 불신 확산	은행에 대한 공포가 감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진다는 뜻.
12	웰다잉(well-dying)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13	무라벨(無label)	무상표	상품 정보나 상표 따위가 표시된 라벨이 없음.
14	어닝 쇼크(earning shock)	실적 충격	기업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경우 시장에서 받게 되는 충격. 또는 이로 말미암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15	페어링(pairing)	맞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16	페이 컷트(paycut)	감액 계약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
17	콜 포비아(call phobia)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18	메타팜(metafarm ← metaverse + smartfarm)	가상 농장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작황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농업 방식을 모의 실험하여 농사에 적용하는 것.
19	오마카세(omaka[御任]se)	주방 특선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요리. 대부분 주방장이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코스로 손님에게 낸다.
20	마이크로 러닝 1(micro learning)	짧막 학습	짧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21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22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 경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23	마이크로 러닝 2(micro learning)	단기 학습	적은 단위로 응축된 교육 과정.
24	이지 머니(easy money)	저리 자금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원활하여 자금 조달이 쉬운 상태를 이르는 말.
25	메가 딜(mega deal)	초대형 거래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규모가 매우 큰 거래.
26	세이브케이션(savecation)	알뜰 휴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경향.
27	버티포트(vertiport ← vertical flight + port)	수직 이착륙장	기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정거장 또는 터미널.
28	슬로 패션(slow fashion)	친환경 패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옷의 생산 및 소비 속도를 늦추는 패션 경향.
29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30	비거노믹스(vegan economics)	채식 산업	점차 커지고 있는 채식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르는 말.
31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허위 생성	인공 지능이 거짓이거나 맥락과 관련없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
32	셔틀 외교(shuttle 外交)	왕래 외교	갈등이 있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
33	아트 테크(art tech)	예술품 투자	예술 작품을 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 주로 작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린다.
34	메타노믹스(metanomics ← metaverse+economics)	가상 세계 경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경제 현상.
35	에듀 푸어(education poor)	교육 과소비층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가 어려운 계층.
36	실버 푸어(silver poor)	노년 빈곤층, 노후 빈곤층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해, 퇴직 후 바로 빈곤층에 진입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대.
37	베타 테스트(beta test)	출시 전 시험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
38	필드 테스트(field test)	실사용 평가	실용화된 간단한 집단 실사용 시험.
39	소셜 본드(social bond)	사회 가치 채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채권.
40	프리패브(prefab)	사전 제작,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하여 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41	메가 오퍼(mega offer)	초고액 제안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인기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
42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맞춤 색상	개인이 가진 신체와 어울리는 색. 사용자에게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미지 관리 따위에 효과적이다.
43	클린 하우스(clean house)	쓰레기 수거장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만든 시설.
44	리커머스(recommerce)	재거래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 새로운 상품을 살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와 일정 기간 후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 주는 교환 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2023년에 꼭 바뀌 써야 할 말 50개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유초중고에 <b>AI</b> → <b>인공 지능</b>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b>AI</b> → <b>조류 인플루엔자</b>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b>AR</b> → <b>증강 현실</b> 평화의 소녀상이 개발됐다.
4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	<b>ASF</b> → <b>아프리카돼지열병</b>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5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체계)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BRT</b> → <b>간선 급행 버스</b>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6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b>ESG</b> → <b>사회 가치 경영</b> 이 부각되고 있다.
7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b>FTA</b> → <b>자유 무역 협정</b> 을 체결했다.
8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b>GMP</b> → <b>품질 관리 기준</b>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9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b>HACCP</b> → <b>식품안전관리 체계</b> 가 적용된다.
10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b>ICT</b> → <b>정보 통신 기술</b> 로 농촌이 바뀌어 간다.
11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돌봄과 <b>IoT</b> → <b>사물 인터넷</b>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2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b>IP</b> → <b>지적 재산</b> 분쟁 대응을 돕는다.
13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신산업 증가에 따라 <b>IR</b> → <b>기업 투자 설명회</b>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르네상스 걸작과 <b>IT</b> → <b>정보 기술</b>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b>MOU</b> → <b>업무 협약</b> 을 맺었다.
16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증서	풍속화 30점을 하나씩 <b>NFT</b> → <b>대체 불가 토큰</b> 으로 발행하여 판매한다.
17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b>ODA</b> → <b>공적 개발 원조</b> 도 계속 확대한다.
18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b>OTT</b> → <b>온라인 동영상 서비스</b>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9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및 <b>PM</b> → <b>개인형 이동장치</b>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20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b>R&amp;D</b> → <b>연구 개발</b>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1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 처리 자동화	통지서 발송 업무에 <b>RPA</b> → <b>업무 처리 자동화</b> 시스템을 도입한다.
22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b>SNS</b> → <b>사회 관계망</b>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23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b>SOC</b> → 사회 기반 시설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24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b>TF</b> → <b>전담반</b>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5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인천시가 <b>UAM</b> → <b>도심 항공 교통</b>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6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게임하듯 <b>VR</b> → <b>가상 현실</b> 로 실습하고 화상 수업한다
2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시대, <b>WHO</b> → <b>세계보건기구</b>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8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b>WTO</b> → <b>세계무역기구</b> 제소를 시사했다.
29	XR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공공·민간 분야의 <b>XR</b> → <b>확장 현실</b> , 사물 인터넷 등 대형 사업에 투자를 지원 한다.
30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b>거버넌스</b> → <b>민관 협력</b> 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발전 방안
31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b>디지털트윈</b> → <b>디지털 복제</b>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도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2	로컬	Local	지역, 현지, 지방	<b>로컬</b> → <b>지역</b> 에 밀착한 문화 정책을 기대한다.
33	리빙 랩	Living lab	생활 실험실, 살아 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주민들이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b>리빙랩</b> → <b>생활 실험실</b> 이 문을 열었다.
34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신도시 건설엔 무엇보다 <b>마스터플랜</b> → <b>기본 계획</b> 이 중요하다.
35	매칭	Matching	맞출, 연결, 연계, 대응	언골 인식부터 간병인 <b>매칭</b> → <b>연결</b> 까지
36	모멘텀	Momentum	① 동력, 추동력 ② 전환 국면	양국이 대화의 <b>모멘텀</b> → <b>동력</b> 을 유지하고, 지속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다.
37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더 다양하고 편리한 <b>모빌리티</b> → <b>이동 수단</b>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8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	항만 개발과 시설 현대화 과정 등 해양 역사를 <b>아카이브</b> → <b>기록 보관소</b> 로 구축한다.
39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새싹 기업 육성 기관,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창업 기획자	해외 현지 <b>엑셀러레이터</b> → <b>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b> 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40	엑셀러레이팅	Accelerating	육성, 창업 기획	관광 산업 분야의 <b>엑셀러레이팅</b> → <b>창업 기획</b> , 금융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을 한다.
41	어젠다	Agenda	의제, 가치관	탄소 중립은 이제 중요한 국가적 <b>어젠다</b> → <b>의제</b> 가 되었다.
42	워킹 그룹	Working group	실무단, 실무 협의단	코로나19 금융 상황 점검 <b>워킹 그룹</b> → <b>실무단</b> 을 만들었다.
43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복지 <b>인프라</b> → <b>기반</b>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44	컨소시엄	Consortium	협력체, 연합체, 협력 모임	산·학·연 215개 기관이 <b>컨소시엄</b> → <b>협력체</b> 를 구성해 국가 인공 지능 역량을 높인다.
45	키오스크	Kiosk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b>키오스크</b> → <b>무인 주문기</b> 가 대중화되고 있다.
46	킵오프 회의	Kick off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의 <b>킵오프 회의</b> → <b>첫 기획 회의</b> 가 열렸다.
47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능터, 시험대, 성능 시험장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b>테스트 베드</b> → <b>가능터</b>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48	핀테크	Fintech	금융 기술, 금융 기술 서비스	<b>핀테크</b> → <b>금융 기술</b> 기반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49	핫라인	Hot line	직통 창구, 직통 회선, 직통 전화, 비상 직통 전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b>핫라인</b> → <b>직통 회선</b> 개선을 추진한다.
50	허브	Hub	거점, 중심, 중심지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창업 <b>허브</b> → <b>거점</b>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국어문화원연합회	02-2669-9605	서울

독자 의견 청취 행사

국민 모두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연대와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항상 함께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 한글문화연대가 발간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2. 이번 가을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앞으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름호 독자 의견 당첨자 | 우O형 010-0000-7526 조O현 010-0000-6499  
이O진 010-0000-2318 창O동 010-0000-7526

휴대전화 독자 의견 청취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빠르고 간편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 참여방법

- 휴대전화에서 검색창(네이버, 다음 등)을 열고 정보무늬(QR) 접속창을 연다.
- 접속창을 연 상태에서 소식지에 삽입된 정보무늬(QR)를 촬영한다.



-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 청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기면 참여 완료.

우리말 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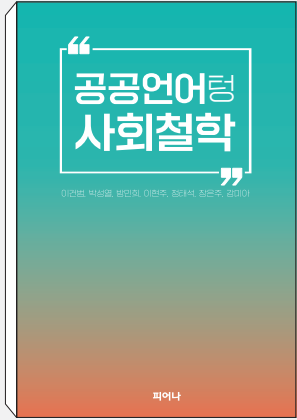
우리 말글 상식, 글쓰기, 공공언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피어나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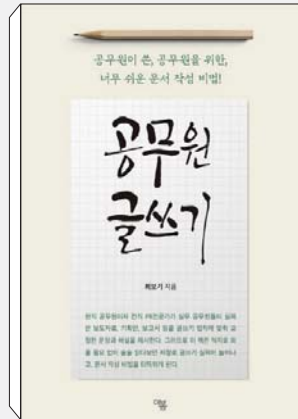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 국어운동 중심에 섰던 저자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임을 강조한다. 공공언어를 다루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사회지도층, 민주시민을 위한 필독서다.



공공언어의 사회철학

피어나 | 25,000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등을 다루는 공적 정보가 담긴 말, 즉 공공언어가 어떤 사회철학 위에서 쓰이면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동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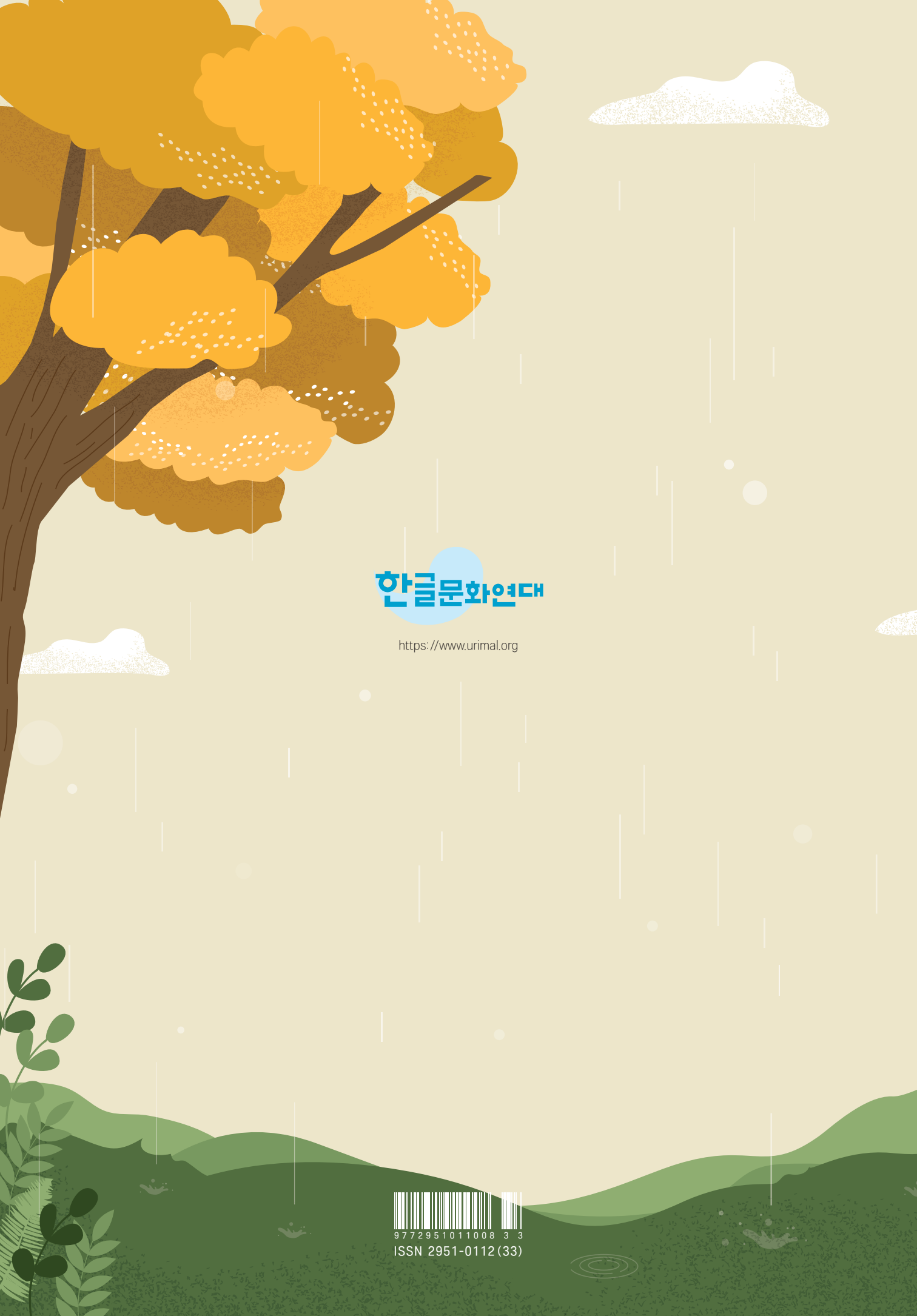


공무원 글쓰기

더봄 | 18,000원

현직 공무원이자 유명 북칼럼니스트 최보기 작가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보고서의 단문 및 장문(공지, 보도 자료, 인사말, 연설문, 기고문, 누리소통망)을 간결·명료하게 쓰는 문장비결을 담은 《공무원 글쓰기》를 펴냈다. 일선 공무원들이 쓴 원문과 저자의 교정문, 해설을 붙였다.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9 772951 011008 3 3  
ISSN 2951-0112(33)